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감정을 위한 현황파악과 시대구분

박 가 영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전임강사

Present Situations of the Remaining Korean Armors and Helmets of Joseon Dynasty and their Periodization for A Better Appraisal

Ga-Young Park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2008. 5. 14 투고)

ABSTRACT

This is a basic study of the remaining armors and helmets of the Joseon period for our better understanding and better maintenance of them. For the purpose, this paper shall try to show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remaining armor and helmets of the period in Korea, and their typical classification for periodization, and the nomenclature about them.

First, to oversee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remaining armor and helmets of the period, study was done about the kinds of armors and helmets, their users, and their possessors today. It was found that the exact dates and users were unclear for many cases of the armors and helmets under our consideration. It is understandable when we consider many of them were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instead of being well-preserved in Korea upon excavations.

Secondly, for their typical classifications for periodization, types were delineated from the pictures and drawings in reference to the periodical changes of them from Korean historical records. The result was that we can find out 4 types of armors, and 3 types of helmets, with their combinations. This shall be usefully applied for the better periodization of the remaining items.

Thirdly, we come to the problem of naming of the remaining armors and helmets. For better nomenclature of the remains all the names of the armors and helmets for the Joseon period are collected from historical literature, to figure out some principles of nomenclature for them. I found some discrepancies with the present names of them, and my propositions are suggested to replace them.

Key words: armor(갑옷), helmet(투구), Joseon Dynasty(조선시대), appraisal(유물감정), periodization(시대구분), nomenclature(명명방식)

I. 머리말

문화재청은 2007년 문화재 감정 기준 지침서를 마련하고 사이버 감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재 감정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2007년 5월에서 6월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화재의 감정기준과 분야별 문화재 감정 안내서를 공개하여 실시간 토론회로 전문가 간의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고 비실시간 토론회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¹⁾ 9월에는 문화재 감정 기준 연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 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재 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지 전문분야 감정위원과 현지 비전문 감정위원이 합동으로 감정할 수 있는 문화재 사이버 감정체계를 향후 도입하여 대국민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²⁾

이상에서 보이는 정부의 노력들은 국외로 반출되는 문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유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감정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목적은 갑주 유물에는 다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재 갑옷과 투구 유물은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를 구분하거나 도난에 의해 국외로 밀반출되는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갑주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갑주의 시대를 구분하며 유형화를 시도하며 박물관에서의 명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 유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나 구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갑옷과 투구 유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갑주 유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갑주 유물의 현황 파악, 유물의 시대구분을 위한 갑옷과 투구의 유형화, 갑주 유물의 명명(命名)의 3가지를 연구주제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박물관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선시대 갑주로 제한하였다.

첫째,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의 종류, 유물의 연대와 착용자, 소장처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갑주 이외의 복식유물과는 다른 특징들을 추출하고 그 원인을 밝혀낸다.

둘째, 갑주에 대한 제도나 갑주의 구조에 관련된 도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五禮),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와 같은 예서(禮書)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용원필비(戎垣必備)』 등의 병서(兵書)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문헌에 나타난 갑주 제도의 변천을 바탕으로 실물, 회화 등의 사료들과 연결시켜 유형화함으로써 갑주 유물의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셋째, 조선시대 갑주 유물에 올바른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명명방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 『무위영각색군기완과구별성책(武衛營各色軍器完破區別成冊)』 등의 각종 고서(古書)와 고문서(古文書)에 기록된 조선시대 갑주의 명칭을 수집한 후 명명의 원칙을 추출하여 현존하는 유물들의 명명방식을 제시한다.

III.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현황

1. 유물의 소장현황 파악

국내와 해외에 소장된 조선시대 갑주 유물 100여 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해보았다.³⁾ 종류는 전갑주(靛甲冑), 전철갑주(靛鐵甲冑), 단갑주(緞甲冑), 단피갑주(緞皮甲冑), 목면피갑주(木綿皮甲冑), 두석린갑주(豆錫鱗甲冑)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갑주가 있었고, 드림이 없거나 손상 탈락된 철제 침주와 철제 투구류도 여러 점 있었다. 착용연대는 임진왜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며 근대에 들어서 점차 소멸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장처는 국립박물관, 육군박물관, 대학박물관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착용자의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해외에 소장된 유물의 수량은 상당히 많았다.

<표 1>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소장 현황

종류	갑옷	투구	연대	작용자	소장처
철제 침주		○	1590년대	승병장 사명당	북한 평안북도 향산군 수충사
철제 투구		○	1542-1607	류성룡	경북 안동군 풍천면
피갑(찰갑형)	○		1542-1607	류성룡	경북 안동군 풍천면
철갑(찰갑형)	○		16세기 후반	미상	경남문화재연구원
단갑주	○	○	1563-1643	정공청	경북 경주시 평동
단갑주	○	○	1576-1636	정충신	충남 서산군 지곡면
단갑	○		1600-1664	조필달	전북 김제군 월촌면
철제 침주		○	17세기	황대곤	경기도 강화군청
전철갑주	○	○	1676-1728	이봉상(원수)	육군박물관
전철갑주	○	○	1676-1729	이봉상(부원수)	육군박물관
단피갑주	○	○	1699-1773	여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전철갑주	○	○	16~18세기	다대진침사	총렬사
내갑?	○		18세기	미상	창덕궁
다홍전흑칠동엽갑	○		18세기	미상	국립민속박물관
단갑주	○	○	18세기	미상	창덕궁
단철갑주	○	○	18세기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두석린갑주	○	○	18세기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두석린갑주	○	○	18세기	미상	국립경주박물관
목면철갑주	○	○	18세기	미상	서울대학교 박물관
목면피주		○	18세기	미상	육군박물관
목면피호액			18세기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쇄자갑	○		18세기	미상	창덕궁
전갑	○		18세기	동래부사	총렬사
전갑	○		18세기	동래부사	총렬사
전갑	○		18세기	동래부사	총렬사
전갑	○		18세기	동래부사	총렬사
전갑주	○	○	18세기	동래부사	총렬사
전갑주	○	○	18세기	동래부사	총렬사
전갑	○		18세기	미상	창덕궁
전철갑주	○	○	18세기	미상	서울대학교 박물관
홍갑	○		18세기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홍갑	○		18세기	미상	육군박물관
??갑	○		미상	미상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갑주	○	○	미상	미상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
??주		○	미상	미상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주		○	미상	미상	일본 동경 보물유품관
??주(두정)		○	미상	미상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기타 연극용 투구		○	미상	미상	북한 평양시 강동군 태잡리
단?갑주	○	○	미상	미상	일본 동경보물유품관
단피갑주	○	○	미상	미상	육군국립중앙박물관
단피갑주	○	○	미상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단피갑주	○	○	미상	미상	일본 동경보물유품관
두석린갑주	○	○	미상	미상	네덜란드 민족박물관
두석린갑주	○	○	미상	미상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두석린주		○	미상	미상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목면?주		○	미상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목면갑	○		미상	미상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목면갑	○		미상	미상	미국
목면주(두정)		○	미상	미상	동아대학교 박물관
목면철주		○	미상	미상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목면투구		○	미상	미상	미국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목면피갑	○		미상	미상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목면피갑	○		미상	미상	연세대학교 박물관
목면피갑/단피갑	○		미상	미상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목면피갑주	○	○	미상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목면피갑주	○	○	미상	미상	서울대학교 박물관
목면피갑주	○	○	미상	미상	일본 동경보물유품관
쇄자갑(금룡)	○		미상	미상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원주(두정)		○	미상	미상	독일 브레멘해외박물관
전?갑주	○	○	미상	미상	일본 동경보물유품관
중국식 갑주	○	○	미상	미상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
철제 침주		○	미상	미상	연세대학교 박물관
철제 투구 (드림 손상)		○	미상	미상	일본 동경보물유품관
철제 투구 (드림 탈락)		○	미상	미상	고려대학교 박물관
철제 투구 (드림 탈락)		○	미상	미상	독일 뮌헨국립인종학박물관
홍갑	○		미상	미상	일본 동경보물유품관
전?갑	○		미상-복원	미상	러시아 모스크바동양예술박물관
등투구		○	19세기	미상	육군박물관
목면갑	○		19세기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목면갑	○		19세기	미상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목면투구		○	19세기	미상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전갑주	○	○	19세기	미상	온양민속박물관
전주		○	19세기	미상	호암미술관
단갑주	○	○	19세기말	미상	오스트리아 빈예술사박물관
기타 무당투구		○	20세기초	미상	개인 소장
기타 연극용 투구		○	20세기초	미상	러시아 모스크바동양예술박물관
내갑	○		조선후기	미상	육군박물관
삼승주 (철망,복건형)		○	조선후기	미상	육군박물관
??갑주	○	○	미상	미상	미국 브루클린미술관
??갑주	○	○	미상	미상	미국 브루클린미술관
?피갑	○		미상	미상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

갑주 유물은 다른 복식 유물과는 달리 유난히 연대와 착용자가 미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첫째, 출토유물이 없고 전존유물이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출토유물은 피장자의 성별, 신분, 생물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갑주가 출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전존유물은 착용자의 후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어느 선조의 유품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갑주 유물은 후손들이 소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박물관에서도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까닭에 착용연대와 착용자가 밝혀지지 못하였다.

둘째, 해외로 반출된 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갑주 유물은 개항기에 문호가 개방되면서 들어온 외국인에 의해 구매 혹은 탈취되어 전세계로 반출되었다. 해외소장품들은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단의 보고 결과 또는 소장처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착용자와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유물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어렵다.

IV. 조선시대 갑주의 시대구분을 위한 유형화

1. 갑옷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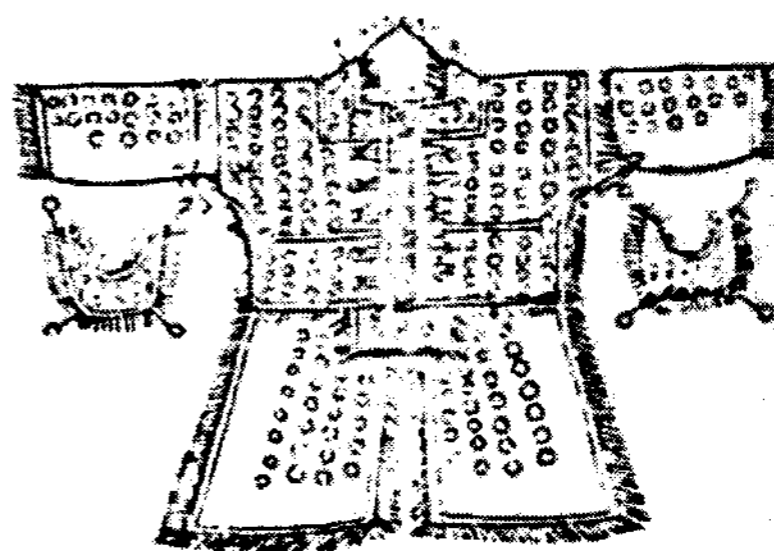
1) I형 : 호항(護項)분리형 갑옷

『세종실록』오례(1450)에서 갑(甲), 『국조오례서례』(1474)에서 수은갑(水銀甲), 유엽갑(柳葉甲), 피갑(皮甲), 지갑(紙甲)으로 기록된 갑옷 유형이며, 몸과 팔을 보호하는 갑신(甲身)과 목을 보호하는 호항(護項)과 겨드랑이를 보호하는 호액(護腋)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제작면에서는 갑찰(甲札)을 상하 좌우로 연결하여 만든 찰갑형(札甲型)으로 분류된다. 무용복식이라서 옷감 위에 갑찰을 그리기는 했지만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의 황화갑(黃畫甲)도 이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실물로는 류성룡(1542~1607)의 피갑(皮甲)과 부산 동래에서 발굴된 철갑(鐵甲) 유물이 있으나 손상이 심하여 정확한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2) II형 : 소매분리형 갑옷

『국조오례서례』(1474)의 황동두정갑(黃銅頭釘甲)은 <그림 2> 몸통을 보호하는 갑신(甲身)과 하반신을 보호하는 갑군(甲裙)이 상하 구분되어 있으며 성기

를 보호하는 골미(鵝尾)와 겨드랑이를 보호하는 호액도 구분된다.⁷⁾ 황동두정갑 도식에서 소매가 분리되도록 그려져 있으므로 '소매분리형'이라 칭하였다. 제작면에서는 옷의 안쪽에 갑찰을 대고 바깥쪽에서 두정으로 고정한 방식으로 의-두정형(衣-頭釘型)이며, 이러한 구조에 해당하는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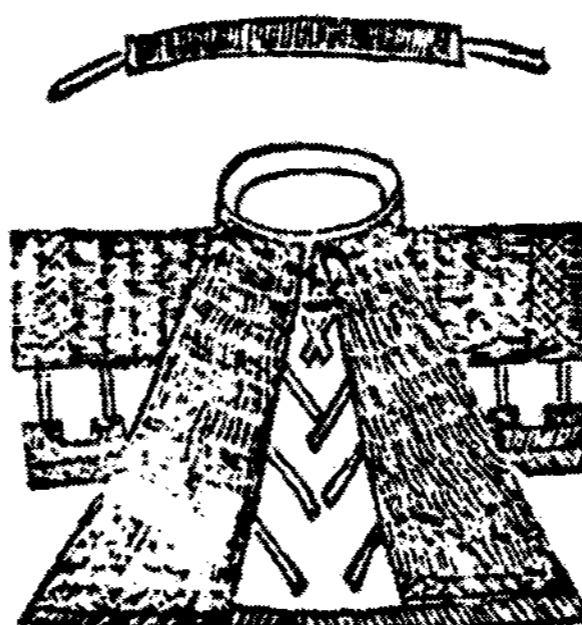
『국조오례서례』黃銅頭釘甲
<그림 2> 갑옷 II형⁸⁾

3) III형 : 의상형(衣裳型)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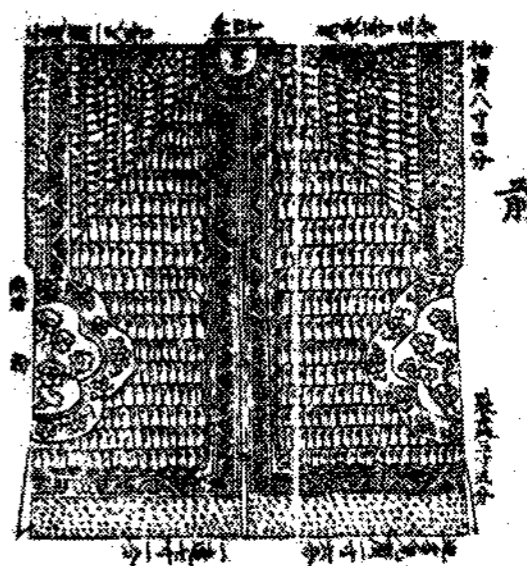
『무예도보통지』(1790)에는 갑, 갑상, 호액, 엄심으로 구분되는 갑옷을 소개한다. <그림 3> 갑옷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이름은 시대와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일된 논지의 전개를 위해 다른 갑옷의 유형에서 사용한 부분명칭으로 보자면 각각은 갑신, 갑군, 호액, 골미로 정리된다. 이때 성기를 보호하는 골미



① 『세종실록』甲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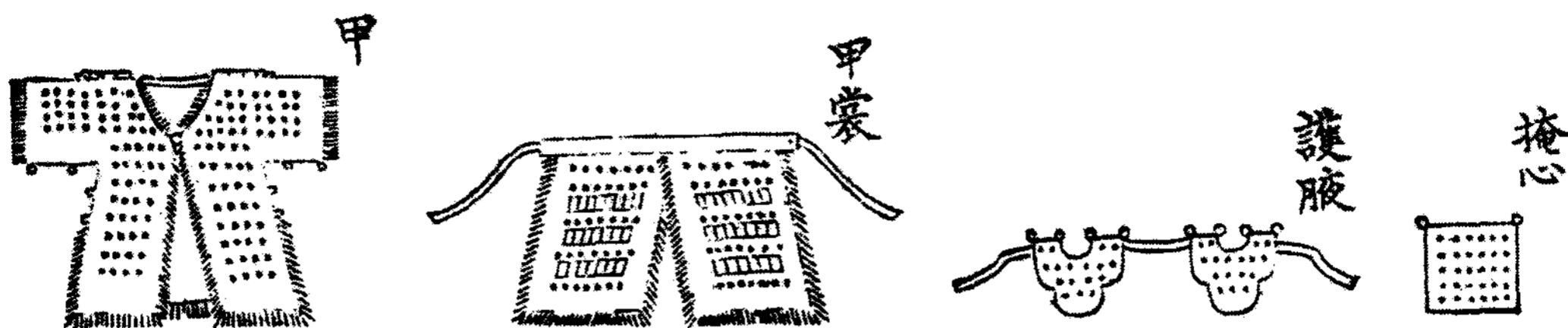


② 『국조오례서례』水銀甲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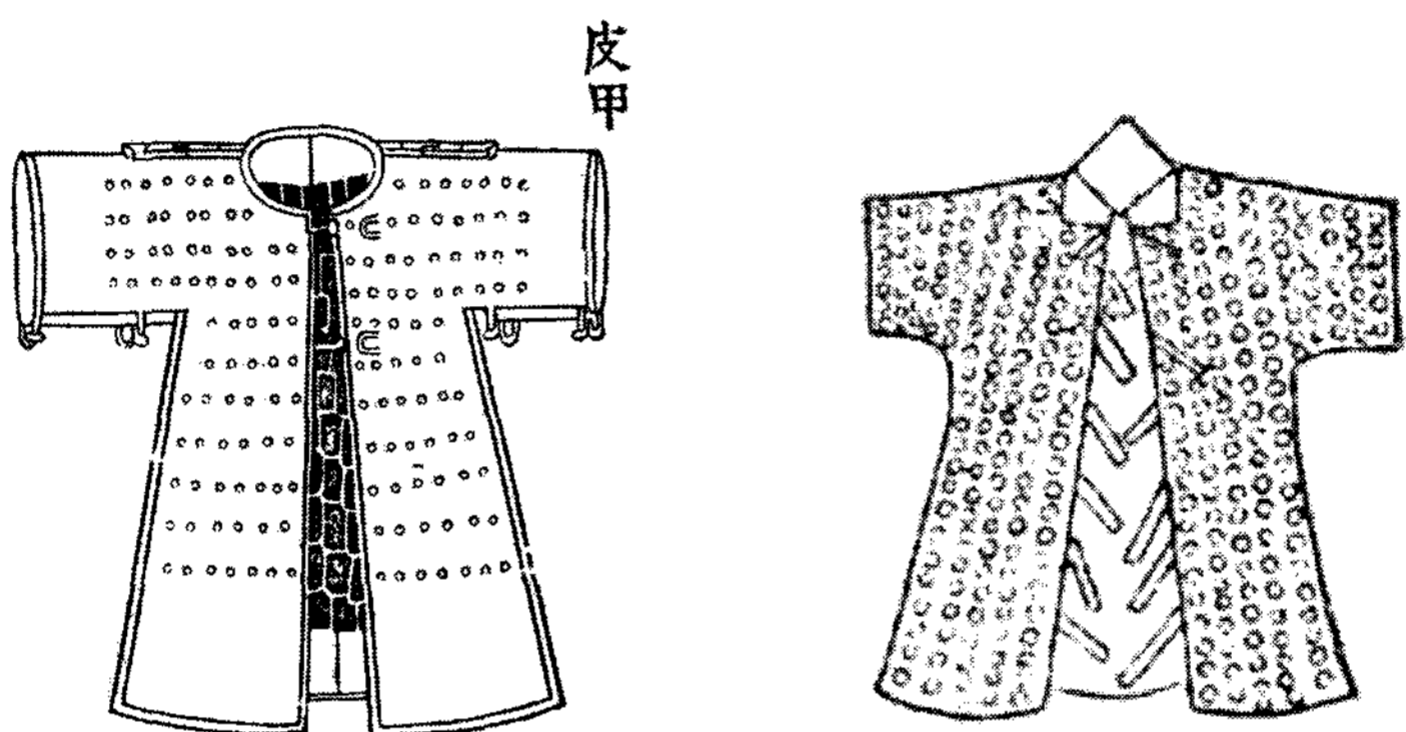


③ 『악학궤범』黃畫甲6)

<그림 1> 갑옷 I형



<그림 3> 갑옷 III형 : 『무예도보통지』 마예관복도설(馬藝冠服圖說)⁹⁾



① 『응원필비』 皮甲¹⁰⁾

② 『국조오례서례』 頭釘甲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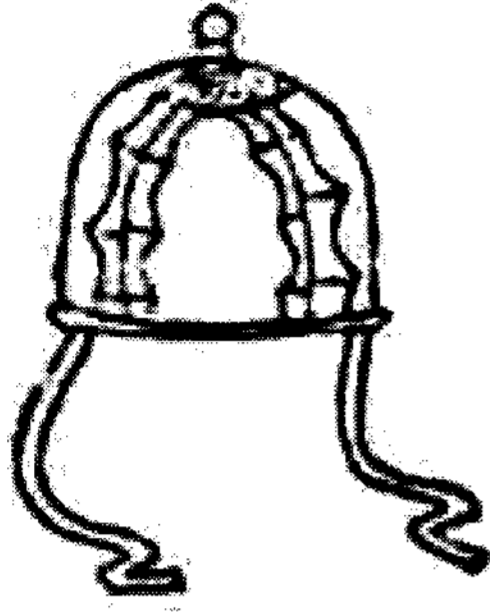
<그림 4> 갑옷 IV형

는 갑신 위에 부착되거나 갑군 위에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 제작방식은 옷에 갑찰을 대고 두정으로 고정한 의-두정형(衣-頭釘型)이다. 갑군의 갑찰 배열로 보아서는 여반(1699~1773)의 단피갑(緞皮甲)과 일치하나, 갑옷의 손상이 심하고 투구는 『무예도보통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창덕궁 소장 단갑주(緞甲冑) 역시 갑신, 갑군, 골미로 구성되어 있으나 투구의 구조는 여반 유물과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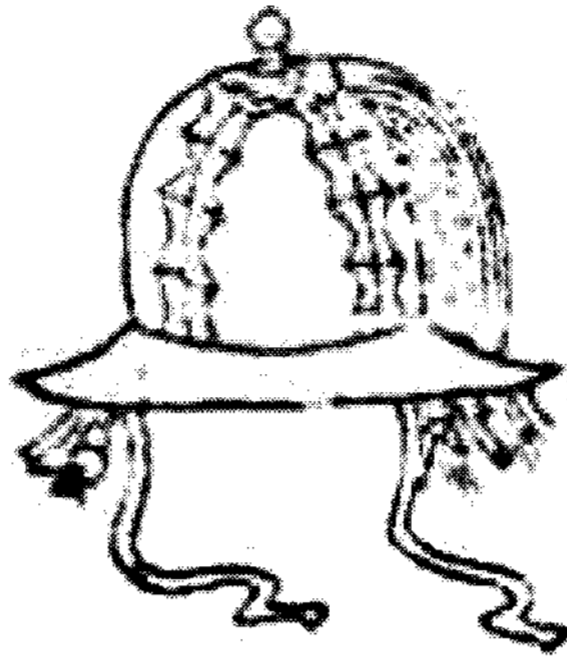
4) IV형 : 포형(袍型) 갑옷

『응원필비』(1813)의 피갑(皮甲) 도식은 갑신이 연장되어 갑군의 역할까지 병행하는 모습이며, 가장 많은 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유형이다. 제작방식은 역시 의-두정형(衣-頭釘型)이지만 일반적으로 피갑은 <그림 4>와 같이 가죽갑찰이 안감쪽에 노출되게 고정되어 있고, 철갑(鐵甲)은 철갑찰이 겉감과 안감 사이에 고정되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제작되었으며, 단갑(緞甲)과 전갑(氈甲)은 갑찰이 없이 갑옷에 두정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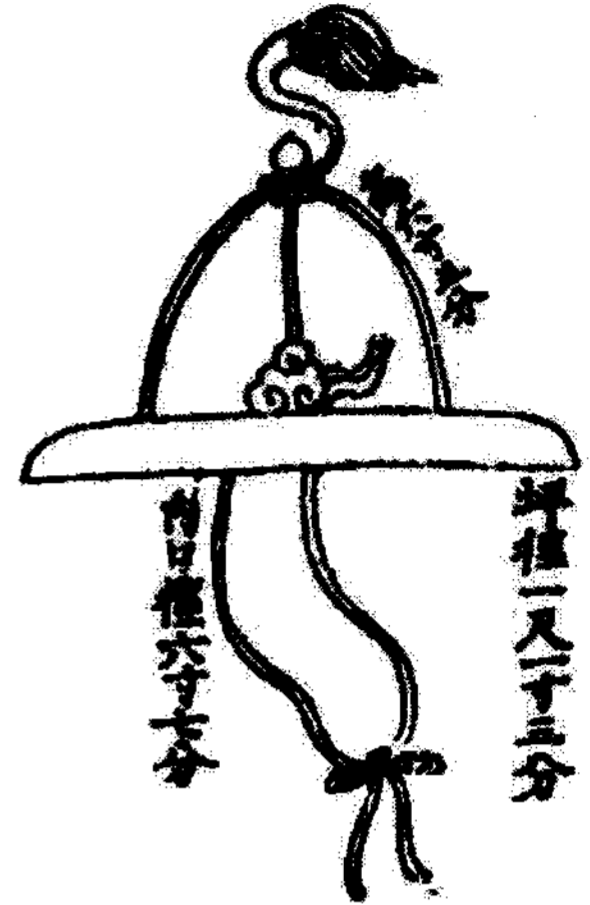
고정하였다. 조선시대 문헌 기록 상 『국조오례서례』(1474)의 두정갑(頭釘甲)에서 첫 선을 보이며 무용복식이기는 하지만 『악학궤범』(1493)의 오색단갑(五色緞甲)도 이러한 갑옷 구조를 지닌다. 유물로는 정공청(1563~1643)과 정충신(1576~1636)과 조필달(1600~1664)의 단갑(緞甲), 이봉상(1676~1728)의 단철갑(緞鐵甲), 충렬사 및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18~19세기의 갑옷 유물 등 대부분의 조선시대 유물이 포형 갑옷에 해당한다. 전투도, 궁중행사도, 의궤반차도에서 보이는 갑옷도 모두 포형이며, 근대 사진이나 세밀화에서도 이 유형의 갑옷이 보인다. 따라서 포형 갑옷은 조선 전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착용된 갑옷 유형이었다.



『국조오례서례』 圓冑¹²⁾
〈그림 5〉 투구A형



① 『국조오례서례』 簷冑¹³⁾
〈그림 6〉 투구B형



② 『악학궤범』 冑¹⁴⁾



① 『무예도보통지』 盔¹⁵⁾



② 『웅원필비』 皮冑¹⁶⁾

〈그림 7〉 투구C형

2. 투구의 유형

1) A형 : 원주형 투구

『세종실록』오례(1450)와 『국조오례서례』(1474)에서는 투구를 차양[簷] 유무에 의해 첨주(簷冑)와 원주(圓冑)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그림 5〉의 원주는 머리가 들어가는 감투부분만 있어 가장 간단한 구조의 투구이며, 조선 초기 왕릉의 무인석상 투구에서 보일 뿐 유물로는 남아있지 않다.

2) B형 : 첨주형 투구

역시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서례』에 기록된 투구로서, 원주와 동일한 감투에 하단을 따라 차양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상모를 달고 조영의 장식도 더한 것으로 보아 원주형보다는 높은 계급에서 착용된 투구였다.〈그림 6〉 『악학궤범』(1493)의 투구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찾아볼 수 있고, 유물로는 황대곤(?~1636)의 철제 투구나 연세대박물관 소장

철제 투구를 들 수 있고, 회화나 왕릉석상에서도 확인된다.

3) C형 : 드림분리형 투구

『무예도보통지』(1790)의 회(盔), 『용원필비』(1813)의 피주(皮冑) 도식처럼<그림 7> 갑투의 위쪽에는 간주(幹柱)와 상모 등 정수리 장식을 달고 갑투의 아래쪽으로는 이마가리개와 전면 차양, 양쪽 귀와 뒷목을 가리는 3조각의 드림이 달려 있다. 현존 유물의 대부분이 속하며 궁중행사도, 의궤반차도, 사진 및 세밀화에서 보여지는 투구도 모두 드림분리형 투구이다.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로는 정공칭(1563~1643)의 철제 투구를 들 수 있고 왕릉 무인석상에서도 17세기 중반부터 드림이 3조각으로 분리되므로, 드림분리형 투구는 17세기 중반부터 조선 말까지 착용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투구 유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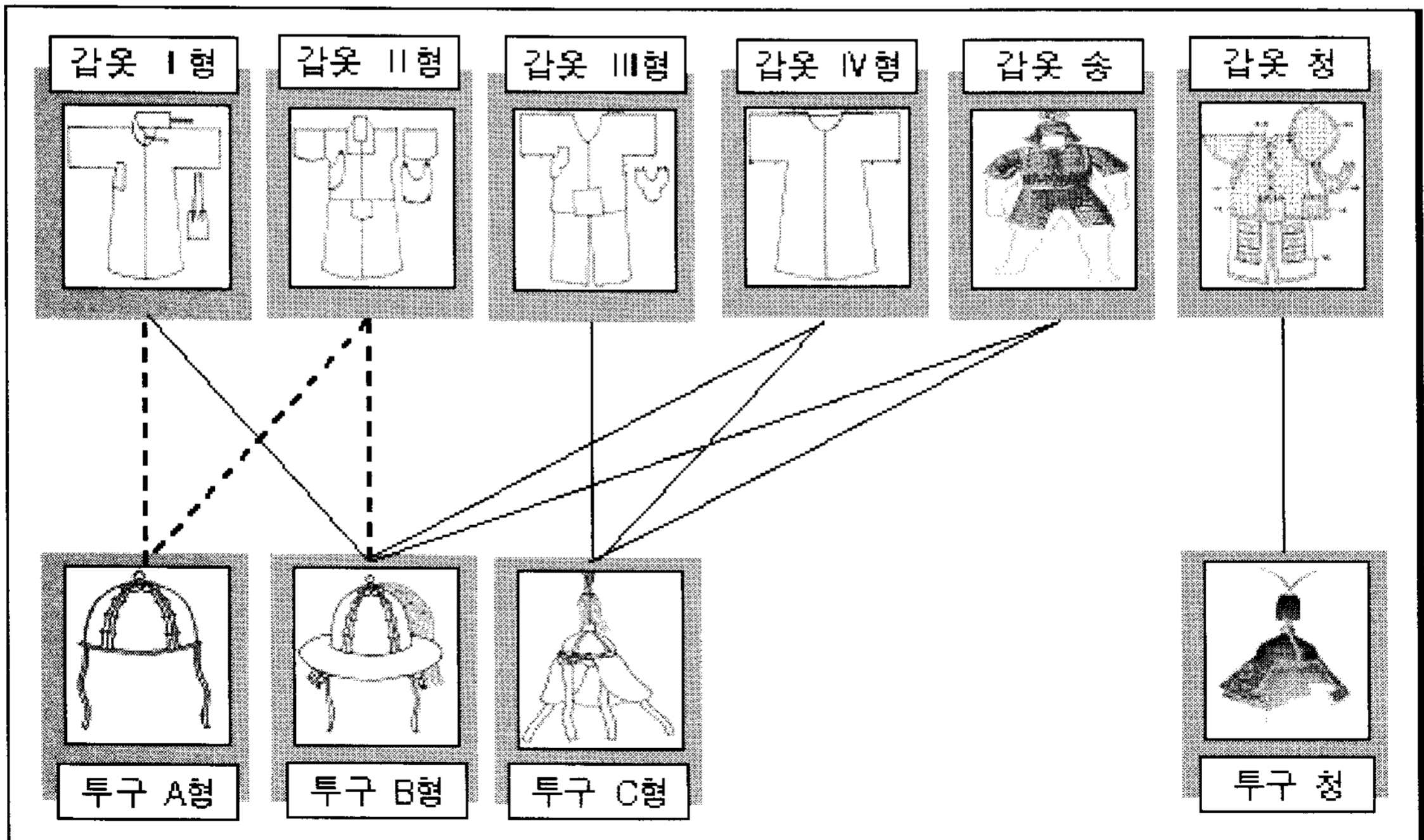
3. 갑옷과 투구의 조합 양상

이상에서 문헌에 기록된 제도의 변천과 실물유물, 회화, 조각 등의 사료들을 종합하여 갑옷과 투구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갑옷의 유형과 투구의 유형은 서로 착용시대가 일치하지 않아서 다양한 조합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림 8>에서는 다양한 사료에서 보이는 갑옷과 투구의 조합 관계를 정리해 보았다.

V.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명명(命名)

1. 문헌기록 상의 갑주 명명방식 분석

『만기요람』(1808) 군정편(軍政篇)의 각 군영별로 지급된 갑주인 단갑주(緞甲冑)·흑광단철갑주(黑廣緞鐵甲冑)·각색목면피갑주(各色木綿皮甲冑)·다홍대단도금동엽갑주(多紅大緞塗金銅葉甲冑)나, 무위영에 보관한 군기(軍器)의 수량과 파손여부를 정리한 『무위영각색군기완과구별성책』(1882)에 기록된 삼승



<그림 8> 갑옷과 투구의 유형별 조합 관계¹⁷⁾

〈표 2〉 갑주의 명명 원칙과 명칭 사례

색	신분	재료		갑주의 부위	문헌에서의 갑주 명칭
		衣의 재료	甲札의 재료		
-	-	-	皮	胄	皮胄
-	-	木綿	-	頭口	木綿頭口
-	-	三升	皮	肩鐵	三升皮肩鐵
-	將官	壯緞	-	甲胄	將官壯緞甲胄
藍	-	大緞	鐵	甲胄	藍大緞鐵甲胄
方色	步軍	-	皮	甲衣	方色步軍皮甲衣
多紅	-	猩猩氈	塗金銅葉	甲胄	多紅猩猩氈塗金銅葉甲胄

갑주(三升甲胄)·백장단피갑주(白壯緞皮甲胄)·사당상오사과총마보초관장단갑주(四堂上五司把摠馬步哨官壯緞甲胄) 등을 보면 갑주의 명칭은 짧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길고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칭들이 혼재하고 있다. 갑주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부분[衣]과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갑찰(甲札)과 갑찰을 옷에 고정시키기 위한 두정(頭釘)의 3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각 부분의 재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었다. 갑주 일습을 이루는 것이 비단 갑옷과 투구만이 아니고 견철(肩鐵)·흉철(胸鐵)·비갑(臂甲) 등 여러 부속구와 부위별 갑옷인 것도 이유가 되었다. 거기에 착용자의 소속과 신분까지 더해지면서 갑주의 명칭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갑주의 명칭을 수집해서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신분-재료-갑주 부위’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었다.¹⁸⁾ 또한 의-두정형 갑옷처럼 복합적인 재료가 사용될 경우에는 ‘의(衣)에 사용된 재료-갑찰(甲札)에 사용된 재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었다. 투구 명칭의 경우 조선 전기에는 머리가 들어가는 갑투 부분의 재료를 기준으로 철투구[鐵胄]와 비단투구[帛胄]로 나눈 반면 갑주의 일습화 경향을 보이는 조선 후기에는 목과 뒷덜미를 보호하는 드림의 재료를 명명의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갑주의 명명원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갑주를 분류하면, 갑옷은 철갑(鐵甲)·피갑(皮甲)·지갑(紙甲)·단갑(緞甲)·전갑(氈甲)·삼승갑(三升甲)·목면갑(木綿甲)·두석린갑(豆錫鱗甲) 등등으로 나뉘었고, 투구는 철주(鐵胄)·피주(皮胄)·비단투구

[緞胄]·삼승주(三升胄)·목면주(木綿胄)·등투구[藤頭口] 등으로 구분된다.

2. 현재 유물 명명방식의 문제점

갑주 유물의 명칭은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 따라 다르게 불리우고 있어 특정 유형의 갑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 ‘두정갑(頭釘甲)’ 문제 또한 자신의 시대에 맞는 명칭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갑옷 유물의 대부분은 별도로 제작된 의(衣)의 안쪽에 두정(頭釘)으로 갑찰을 고정시킨 포형 갑옷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갑옷을 통틀어 ‘두정갑’이라 명명해왔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문헌 중에서 두정갑의 기록이 보이는 것은 『국조오례서례』(1474) 뿐이다.¹⁹⁾ 즉 두정갑의 특징적인 제법이 계속 내려져 왔으나 그 갑옷을 두정갑이라 부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국조오례서례』에 제정된 두정갑이나 황동두정갑의 제도는 형태, 구조, 재료면에서 현존하는 유물들과 차이가 난다. 두정갑은 가장자리에 모피나 선을 두르지 않고 소매가 짧으며 배래나 옆선에 트이지 않은 점 등에서 실물과 차이가 나고, 황동두정갑은 갑신, 갑군, 골미 부분이 구분 또는 분리되는 점이 실물과 다르다. 〈표 3〉에서처럼 유물에서 흔히 보이는 갑찰(甲札)과 의(衣)부분을 구성하는 직물의 조합은 가죽갑찰[皮札]-면(綿), 가죽갑찰[皮札]-비단[緞], 철갑찰[鐵札]-전(氈)인 반면 두정갑은 철갑찰[鐵札]-면(綿)으로 기록되어 재료의 조합에서도 다른 점이 발견된다.

〈표 3〉 문헌과 유물에 나타난 의(衣)와 갑찰(甲札)의 재료 조합 비교

재료 조합		『國朝五禮序例』 (1474)	『萬機要覽』 (1809)	『武衛營各色軍器完破 區別成冊』(1882)	유물
衣	甲札				
緞	鐵		○		○
氈	鐵		○		○
木綿	鐵	○ (頭釘甲)			○
緞	皮	○ (黃銅頭釘甲·頭頭味甲)	○	○	○
木綿	皮		○		○
三升(布)	皮			○	

3. 유물의 명명방식 제시

첫째, 문헌의 명칭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재료'에 의한 명명방식을 제안한다. 간혹 문헌 중에서는 제작방식이나 갑주의 부위별 분류와 명명도 산견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재료로 구분되어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투구의 명칭은 드림의 재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거의 18세기~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후기의 유물이므로 당시의 명명원칙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물은 갑옷과 투구가 일습을 이루므로 갑주로 묶어서 명명하기도 편리하고 문헌기록과도 부합하게 된다. 단 드림이 없는 첨주나 투구 유물은 구분을 위해 철제 첨주(鐵製 簷冑), 철제 투구라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기존의 명명은 조선 초기의 문헌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쓰이지 않던 '두정갑' 명칭을 모든 유물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불려지지 않았던 명칭이었고 두정갑이나 황동두정갑의 제도와 형태, 구조, 재료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물들을 두정갑이라 명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비해 의와 갑찰의 재료 조합 면으로 본다면 〈표 3〉에서와 같이 『만기요람』과 부합하므로²⁰⁾ 『만기요람』에 기록된 단철갑주(緞鐵甲冑)·단피갑주(緞皮甲冑)·목면피갑주(木綿皮甲冑)와 같이 의의 재료-갑찰의 재료 순서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 명명방식은 단갑(緞甲)·전갑(氈甲) 등 갑찰 없이 제작된 갑주를 구분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문헌기록 상의 철갑(鐵

甲)·피갑(皮甲)·지갑(紙甲)의 경우 동일한 이름이라도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즉 조선 초기의 철갑은 철로 만든 갑찰을 가죽끈으로 종횡으로 엮어 연결한 찰갑형(札甲型) 갑옷이었으나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단철갑(緞鐵甲)이나 전철갑(氈鐵甲) 등을 간단하게 철갑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VI. 맺음말

조선시대 갑주 유물을 감정하기 위하여 갑주 유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물의 시대구분을 위한 갑옷과 투구의 유형화를 시도하며, 갑주 유물의 명명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외의 조선시대 갑주 유물 100여 점을 대상으로 갑옷과 투구의 종류, 유물의 연대와 착용자, 소장처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 전갑주, 전철갑주, 단갑주, 목면피갑주, 두석린갑주, 철제 첨주 등 여러 종류의 갑주가 존재했다. 그런데 갑주는 출토유물의 부재와 입수경위가 불분명한 전존유물, 해외소장품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복식 유물과는 달리 연대와 착용자가 미상인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문헌에 나타난 갑주 제도의 변천을 바탕으로 실물, 회화 등의 사료들과 연결시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갑옷은 4가지 유형, 투구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고, 갑옷과 투구의 조합관계도 확인해 보았다. 이는 아직 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갑주 유물을 감정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유물에 시대에 맞는 명칭을 붙여주

기 위해서 명명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선 각종 문헌에 기록된 조선시대 갑주의 명칭을 수집하여 재료를 가장 중요시하던 명명의 원칙과 '색-신분-의(衣) 재료-갑찰(甲札) 재료-갑주 부위'의 명명순서를 밝혀내었다. 박물관별 갑주 명명법의 비통일, 두정갑이라는 명칭의 시대적 모순 등 유물의 명명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명명방식을 제시하였다.

유물을 감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고 진위를 가리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일 것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객관성과 신뢰성이다. 그런데 현재 알려진 갑주 유물은 대부분 '18세기', '조선시대 후기' 정도의 광범위한 연대만 알려져 있거나 연대 미상으로 되어 있어서, 현 단계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대를 추정하는 감정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갑옷은 중국과는 달리 피박(披膊)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포(袍) 형태의 갑옷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무관(武官)의 포(袍) 제도 변천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상호연관성에 의해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진위 여부 감정에 있어서는, 회화나 도자기류의 문화재와는 달리 요즈음 갑주 유물의 해외 밀반출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러시아 모스크바동양예술박물관에서 소장한 조선시대 갑주 유물을 복원한 사례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어느 곳에선가 복원품과 복제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차 진품과 복원품의 구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조선시대 갑주 유물 감정에 있어서 남겨진 과제는 국적 감별 문제이다. 갑주는 개인의 생명과 국가의 존속까지도 연결된 특수복식이었기에 국가 간 파급력이 굉장히 컸으며 상호 갑주 제작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공물(供物)이나 견양(見樣)의 의미로 외국의 갑주를 들여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갑주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유물이라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육군박물관에서는 중국의 쇠자갑 유물과 일본 갑주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창덕궁 소장 단갑주(緞甲冑) 유물은 사선과 곡선을 이용한 재단법, 마제수(馬蹄袖) 처리, 사조룡보의 부착,

투구 뒷드림의 형태와 옆드림의 구조 등 조선보다는 중국 청(淸)의 색채가 강한 유물이다.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의 유물 역시 조선시대 유물로 보고되어 있으나 중국 유물로 의심된다.²¹⁾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유물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중국 명(明)과 청(淸)의 갑주에 대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조선시대 갑주 유물의 특수성과 유물 감정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추후연구과제들을 해결해나간다면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많은 궁금증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유물 감정을 위해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고 사료들을 종합하여 유형화하여 시대를 구분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의 진실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경향신문 (2007. 6. 7). 문화재 감정 기준 만든다. 문화재청 (2007. 6. 1). 문화재 감정! 전문가 울타리 넘어 대중에게 다가오다! - 「문화재 감정기준」제정 및 「문화재 감정 안내서」전자공청회 개최. 자료출처 <http://www.chpri.org/board>
- 2) 문화재청 (2006. 11. 17). 문화재 감정체계에 새 바람이 불다 -문화재 감정기준 마련 및 사이버 감정체계를 구축하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culturalh/110010988572>
- 3) 文化財管理局 (1987). 韓國의 甲冑. 서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1991). 해외소장한국문화재 1 : 한국문화재 : 미국소장.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1995). 해외소장한국문화재 4 : 한국문화재 : 일본소장②. 서울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서울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진주박물관 편 (1998). 국립진주박물관 : 임진왜란 도록.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2). 육군박물관도록. 서울 : 육군사관학교.
호암미술관 편 (1998). 朝鮮後期國寶展 :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3). 서울 : 三星文化財團.
고려대학교박물관 (2008). 고려대학교박물관 名品圖錄. 서울 : 고려대학교박물관.
부산시 내무국 문화재과 편 (1980). 충렬사 정화지. 부산직할시.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1981). 朝鮮時代 宮中服飾. 서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문광희 (2004). 조선후기 甲冑 및 具軍服에 관한 연구

: 부산 忠烈祠 소장 유물을 중심으로, 한복문화학회, 7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소재한국문화재 (<http://overseas.nricp.go.kr>)

북한문화재자료관 (<http://north.nricp.go.kr>)

이상의 도록과 관련 서적, 논문, 문화재 관련 홈페이지와 박물관에 전화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4) 世宗實錄 卷133 五禮 軍禮 書例 兵器.
- 5) 國朝五禮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 6) 樂學軌範 卷9 冠服圖說.
- 7) 『국조오례서례』의 두두미갑(頭頭味甲)도 유사한 구조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도식에서는 소매가 분리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 8) 國朝五禮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 9) 武藝圖譜通志 卷4 冠服圖說 馬藝冠服圖說.
- 10) 戎垣必備 甲冑.
- 11) 國朝五禮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 12) 國朝五禮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 13) 國朝五禮序例 卷4 軍禮 兵器圖說.
- 14) 樂學軌範 卷8 定大業呈才儀物圖說.
- 15) 武藝圖譜通志 卷4 冠服圖說 馬藝冠服圖說.
- 16) 戎垣必備 甲冑.
- 17) 박가영 (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3에 실린 그림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p. 112~114에 있다.
- 18) 색, 신분, 재료, 갑주 부위의 4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가 생략된 경우일지라도 순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많은 요소가 생략된 기록은 간단한 명칭으로 보이고 모든 요소를 기록하거나 의(衣)의 재료를 색·문양·소재까지 기록한 경우는 복잡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 19) 『춘관통고』(1788)에도 두정갑의 기록은 있지만 이 기록이 『국조오례서례』를 그대로 베낀 기록임을 감안한다면 頭釘甲의 명칭이 보이는 문헌은 조선 초기의 『국조오례서례』뿐인 셈이다.
- 20) 비록 『萬機要覽』의 갑주 명칭 중에는 鐵札-綿의 조합이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실물 유물은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 1점뿐이므로 이를 예외로 본다면 실물 유물의 재료와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 21) 러시아 표트르대제인류학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된 일련의 유물들(유물번호 5948 계열)은 갑옷의 구성, 재단법, 사조룡보의 부착, 중국적 문양, 피박의 분리 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시대 갑주유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유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재한국문화재 인터넷 사이트(<http://overseas.nric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